

정정당당한 스포츠 경기를 만드는 '도핑검사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관 박주희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스포츠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룬 기사를 본 적 있나요? 왜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징계 처분을 받을까요?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금지한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순간적으로 뛰어난 체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다른 선수들이 이들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평등한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좋은 성적을 내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심장흥분제, 근육증강제 따위의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등 의학적으로 특수한 처치를 하는 일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핑여부를 엄격하게 가려내어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핑검사관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단 한 번의 경기를 위해 수많은 땀을 흘리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스포츠 경기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만 하지요. 공정한 스포츠 경기를 막는 최대의 적, 도핑. 스포츠 경기의 투명성은 도핑 여부를 가려내는 도핑검사관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도핑검사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 ▶ **도핑검사관이 하는 일은?** 선수들의 도핑여부 가려내는 도핑검사, 선수들에게 도핑 정보 제공하는 교육 진행도

도핑검사는 경기기간 중 검사, 경기기간 외 검사로 나뉘어 진행
소변검사 또는 혈액검사 실시

도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도핑검사 중요성 알리는 교육도 담당!

도핑검사는 경기기간 중 검사, 경기기간 외 검사로 나뉘어 이뤄집니다. 경기기간 중 검사는 경기 직후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경기를 끝낸 선수들 중 몇 명을 임의로 골라 진행합니다. 경기기간 외 검사는 대회 전 불시에 진행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대회 전, 대회 직전까지 머물 지역을 미리 등록합니다. 도핑검사관은 이 지역으로 선수를 찾아가 예고 없이 도핑검사를 진행합니다.

도핑검사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검사관의 감시 아래 이루어집니다. 검사를 받는 선수와 같은 성별의 도핑검사관이 선수와 함께 채취실에 들어가, 검사관의 감시 아래 선수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소변을 다른 사람의 소변으로 바꿔치기를 하거나, 소변에 약물을 타는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소변검사서 확인할 수 없는 성장호르몬 등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좀 더 엄격한 도핑검사가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혈액검사의 경우 도핑검사관과 동행한 혈액채취요원이 선수의 혈액을 채취하기도 하고,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도핑검사관이 직접 선수의 혈액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박주희 도핑검사관은 도핑검사관으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 “도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도핑에 적발된 선수를 직접 대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도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선수들을 위해 도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도핑검사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도핑검사관의 중요한 일입니다.

▼ 도핑검사관에게 필요한 자질은?

공정한 스포츠 경기를 위한 책임감

도핑검사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스포츠 경기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박주희 도핑검사관은 도핑검사관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을 “도핑검사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투명한 스포츠 경기가 도핑검사관의 손에 달린 만큼,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도핑검사관이 되려면?

도핑검사관 양성교육과정 반드시 수료해야

도핑검사관 양성교육 수료하려면?

서류전형 합격 → 교육 이수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통과

도핑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한 해에 1~2회 공개모집으로 실시하는 도핑검사관 양성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도핑검사관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먼저 교육생이 되

기 위해 서류전형에 합격해야 합니다. 서류전형을 통과해 선발되면 이론 교육, 실기교육, 현장교육을 통해 국제 도핑기준이나 소변과 혈액 채취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모든 교육을 받으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지요.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소속되어 도핑검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혈액채취요원을 동반하지 않고서도 직접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도핑검사관이 되려면 반드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거나 임상병리자격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 도핑검사관,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도핑검사관은 해외에서만 활동한다? NO!

국내 스포츠경기의 도핑검사 수행이 주 임무

국내에서 국제대회 개최, 외국으로부터 도핑검사관 파견 요청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외에서 도핑검사 진행

▶ 해외활동 기회 얻고 싶다면 외국어 능력 갖춰야

도핑검사관이 되면 즉시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해외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소속된 도핑검사관의 주 임무는 국내 스포츠 경기의 도핑검사입니다.

다만 국제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도핑검사관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해외로 파견되어 도핑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도핑검사관이 선발되어 파견되지요. 이처럼 도핑검사관은 반드시 국제경기에서 활동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핑 검사관으로서 해외 활동 기회를 얻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스포츠 정신이란 스포츠 선수가 상대선수와 심판을 존중하고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도핑검사관은 바로 이 스포츠 정신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도핑검사관을 꿈꾸는 학생은 수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늘 상기하며, 진정성 있게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랍니다.